

경제

마일리지 적립·택배·소외계층 배달 심부름·안전 지키기...

동네 구멍가게 “별게 다 되네”

광주·전남 나들가게 538곳 ... 내년엔 공과금도 받아

단순히 생활물품만 팔던 동네 구멍가게가 변하고 있다. 마일리지 적립해주고 택배도 받아준다. 또 소외계층의 배달 심부름과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도 한다. 내년에는 공과금도 받을 예정이다.

1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전국 골목에 흩어져 있는 나들가게를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주민생활 안심터’로 활용하기 위해 이날 경찰청과 협약을 맺었다.

긴급정보전송 및 긴급신고시스템 등 경찰청 정보망을 나들가게의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실종자 찾기는 물론 112 범죄 신고를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나들가게는 실종자 정보 수신 및 신고로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나들가게는 골목 슈퍼로서 지역주민과의 친밀성, 주변사정에 밝은 점 등의 장점을 가져 방범, 미성년자 비행방지, 아동보호, 실종자 찾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나들가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수호천사 임명뿐 아니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중기청은 경찰청과 함께 매월 활동실적을 평가해 우수 활동점포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들가게에서는 동네 지킴이뿐만 아니라 택배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

나들가게는 지난 5월 로젠택배와 제휴해 24시간 편의점처럼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어려운 고객들에게는 직접 배달도 해준다.

또 SK그룹과 협약을 맺어 OK캐쉬백 적립도 해준다. 별도의 회원카드가 없어도 휴대폰 번호로 현금을 적립해주는 엔케이백 서비스도 있다. 현금자동인출기를 갖춘 곳도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POS 단말기가 설치돼 있기에 가능하다.

중기청은 내년에는 공과금 수납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데서 벗어나 생활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공과금 수납 등 사회적 공공기능을 도입해 지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들가게는 광주·전남지역 538곳(광주 237곳, 전남 301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300곳이 있다. 중기청은 내년엔 4700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1만개의 나들가게를 육성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따뜻한 가을 샐러드

나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계절 탓일까?’ 펜스레 우울해진다. 설마 나만 그럴까?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며 설왕설래하는 남성들도 보였고, 주변의 지인들 역시 이 가을이 다가오기 전에 무언가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는가? 가을의 우울증 역시 자연스런 사실이라는 것을. 바로 가을의 일조량 부족 때문이라는 데 이것이 체내 비타민D 저하로 이어지면서 기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고 대신 우울함이 생긴다는 멜라토닌이 늘어나 ‘계절성 우울증’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꼭 ‘인체의 신비’ 때문만은 아니겠는가. 한 것 없이 끝나가고 있는 한 해도 그렇고 쌀쌀한 날씨 탓인지 따뜻한 것들이 그리워져서 ‘외롭다’ 느끼는 건 아닐까?

하연간 어느 외식업체에서는 이런 논리로 ‘가을 외로움을 덜어 줄 메뉴를 개발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았다. 바로 음식으로 비타민D를 보충해주는 의견인데 그렇게 하면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 돼 기분이 좋아진다는 논리다. 그렇게 내놓은 아침식이 바로 연어요리, 표고버섯요리, 그리고 새우가 들어간 씨푸드요리인데 바로 비타민D가 풍부한 재료들이다.

글쎄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식사일테니 마음의 위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였을까? 요즘 부쩍 나의 이웃들과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다. 주말만 해도 옆집에서 한 차레 그리고 다음날은 우리 집에서 또 한 차레 이어졌는데 근사한 바비큐를 가진 수정이네선 돼지고기 바비큐와 나물과 야채를 그리고 오븐을 가진 내 집에선 생선구이와 약간의 샐러드가 마련됐다.

흔히 샐러드하면 냉수에서 막 건진 아삭한 야채를 떠 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계절엔 기관지 약한 나로서는 바로 기침을 부르는 행위라 자제 중이고 그래서 요즘 즐기게 된 따뜻한 샐러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야채를 살짝 구워 소스를 얹어 먹는 방법인데 제철 고구마며 버섯 등 야채를 풍부하게 먹을 수 있으니 비타민 보충에 그만이다. 게다가 따뜻해서 한 끼 밥처럼 든든해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게도 강력 추천이다.

야채 살짝 구워 소스얹어 먹으면 비타민 보충에 한끼 밥처럼 든든



그럼 만드는 법을 소개하겠다. ‘요즘 우울해 나는 비타민D 섭취가 필요해!’하시는 분들은 새우와 표고버섯을 소금·후추 뿌려가며 그릴 팬에 각각 구워내고 단호박(혹은 고구마)과 양파 혹은 가지 역시 구워둔다. 찬바람 나고 맛있어지는 시금치도 살짝 볶아(혹은 참기름 약간) 두른 프라이팬에 손으로 뜯어내고 소금·후추로 간 맞춰 살짝 볶아낸다. 내 경우 데치는 일보다 간단하고 영양소 손실도 없는 것 같아 선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익힌 콩이나 미니토마토를 볶거나 아니면 그대로 넣는다. 가끔 농담 삼아 ‘내 요리는 색이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런 식재료들이 그 묘를 훌륭히 수행한다. 사실 음식의 오색 속에 숨은 각각 다른 영양성분을 알고 나면 음식에 있어 색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연간 설명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간단히 구운 야채에 소스는 무얼 얹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올리브유에 같은 양의 발사믹 식초를 넣고 짭짤할 정도의 소금을 넣어 뿌려 먹는 것인데 조금 달콤하게 즐기고 싶다면 매실 엑기스나 약간의 메이플 시럽이나 꿀을 넣어도 좋다. ‘난 한식이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간장과 올리브오일 또 식초(혹은 레몬즙) 그리고 물을 동량으로 넣고 섞어두었다가 뿌려 먹으면 되는데 계를 더해 도 좋다. 참, 프라이팬에 야채를 볶다보면 나오는 물도 버리지 말고 소스 만들 때 물 대신 넣어보자. 맛도 있을뿐더러 영양도 만점이다.

오븐 앞에서 서성거리는 시간이 좋아지는 계절이다. 그 훈훈한 기운과 감이 나는 식탁. 사실 힐링 푸드가 뭐 별건가? 만물면서, 먹으면서 ‘참 따뜻하다’ 느꼈으면 된다.

/*김양택의 열 두 달 살림법 저자 jazzchants@hanmail.net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16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공생경영 결의대회를 열고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창립 43주년 ‘공생경영’ 실천 다짐

고객 대표 12명에 감사패

광주은행이 창립 43주년(11월 20일)을 맞아 ‘석과불식(碩果不食·큰 과실은 다 따지 않고 남긴다)’의 정신을 강조하며 지역민과 상생하는 ‘공생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광주은행은 16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기진 행장을 비롯해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수(제6대), 강락원(제7대), 엄종대(제8대), 정태석

(제9대) 전 행장과 광운리더스클럽 회장단, 광주은행 선배 임원단, 최우수 고객 대표 등이 참석해 창립 43돌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각 부문에서 선정한 광주은행 고객 대표 1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 부점장과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송기진 행장은 기념사에서 “광주은행이 현재의 초우량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지역민과 고객들의 한없는 사랑과 격려 덕분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기 위한 공생경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기념식 마친 뒤 ‘공생

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임직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CSR을 선도하는 공생경영 실천 등 4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미소금융 추가 출연과 KJB새희망출세대출 확대 등 각종 금융지원 확대와 공생경영 마일리지 제도 도입, KJB금융박물관 설립 등 공생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전략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H 이사회 의장 이정록씨

이정록 전남대 교수(지리학과)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의장에 임명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교수를 LH 이사회 의장직인 선임 비상임이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LH의 경영 목표와 예·결산, 운영계획 등 중요 정책의 의



결한다. 이 교수는 대한지리학회 회장, 새국토연구협의 회 공동대표,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iF디자인어워드 2012’

금호타이어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사장 김중호)는 16일 세계 3대 디자인상의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2’에서 제품 디자인 어워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총 48개국 4322개 제품이 출품된 이번 대회에서 금호타이어의 ‘마제스티 솔루스’, ‘엑스타 LE Sport’, ‘아이젠 KW27’ 등 시판 중인 3개 타이어가 본상을 받았다.

이 타이어는 타이어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 타이어 안쪽과 바깥쪽의 패턴을 달리 한 비대칭 인-아웃 디자인이 적용됐다. 안쪽 패턴은 배수성능 및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 성능을 극대화하고, 바깥쪽 패턴은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준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첨단 연구’ 부문에서 콘셉트 타이어를 출품해 본상을 수상했다. 한편,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 미국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박정욱기자 jwpark@



1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본부 내 ‘태양전지 R&D 기술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김재균 국회의원, 나경환 생기원장 등이 센터 현판 제막 행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에 태양전지 R&D 기술지원센터 개소

생기원 호남권본부

국내 태양광 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태양전지 R&D 기술지원센터’가 16일 광주에 문을 열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은 이날 생기원 호남권본부에서 ‘태양전지 R&D 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고, 태양전지 핵심 소재 및 부품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기존 솔라티센터와 연계해 연면적 396㎡(120평) 규모로 구축,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소재·셀·

모듈의 시험분석과 성능평가, 신뢰성 검증 등을 수행한다. 또 태양광 관련 기업이 개발한 기술,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지원 등 관련기업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생기원은 이날 개소식과 함께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등과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증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태양광산업 발전과 광주지역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을 위

해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와 협력 ▲기초 및 실용화 분야를 포함한 공동연구 ▲연구시설 및 실험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환 생기원 원장은 “호남은 그린에너지 및 광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있는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의 중심지”라며 “센터를 통해 우수한 첨단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기고 유망 중소·중견기업 육성·발전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56.07 (-30.05)
▼ 코스닥지수	497.58 (-10.75)
▼ 금리 (국고채 3년)	3.34% (-0.02)
▲ 원·달러 환율	1136.60원 (+10.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연금복권 (제20회)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X 20년	1조	4 8 6 3 7 4
		4조	6 4 5 6 0 1
2등	100,000,000	1조	4 8 6 3 7 3
		4조	6 4 5 6 0 0
3등	10,000,000	각조	6 5 1 0 0 1
		4조	6 4 5 6 0 2
4등	1,000,000	각조	0 6 0 6 0
5등	200,000	각조	0 2 8 4
6등	2,000	각조	2 1
		각조	1 4
7등	1,000	각조	3
		각조	2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 인기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 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함(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향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제품(PP,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변색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광주,전남 시/군/구
대리점/취급점 목록

(주)우림네트웍스
1599-9093
www.donbandi.net

형광등용

다온라이팅용

삼파장용

에코반사캡

DIY세트